

천황제의 과거와 현재

2017. 10.23

리쓰메이칸 대학 가쓰라지마 노부히로(桂島宣弘)

1.

일본 천황의 '생전 퇴위'를 결정한 특례법이 2017년 6월 9일에 성립하면서 2018년 말에는 현 천황이 퇴위하고 새로운 천황이 즉위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신 천황이 원칙이었던 근대 이후의 천황제의 성격상 확실히 이례적인 일로,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현 천황의 강한 의지도 있었기에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났다. 천황은 "나도 80살을 넘어서 체력적인 면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는 일도 있고, 요 몇 년 사이에 천황으로서의 인생을 돌아봄과 동시에 앞으로의 나의 상태나 책무에 비추어보아 이러한 생각에 미쳤다", "두 번의 외과 수술을 받고 더군다나 고령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를 느끼게 되면서부터 앞으로의 장래에 지금처럼 무거운 임무를 지는 것이 곤란해 졌을 경우, 이에 어떻게 처신해 가는 것이 나라에게, 국민에게, 또한 내 뒤를 걸게 될 황족에게 좋은 일인가에 관해 생각하게 되어" 퇴위를 결의했다고 한다(2016년 7월 13일).

이 의지 표명에서 중요한 점은 퇴위의 의지표시와 더불어 "내가 천황의 자리에 있으면서부터 거의 28년 동안 나는, 이 나라에 있었던 많은 기쁜 날과 슬픈 날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고 (중략)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천황이 국민에게, 상징으로서의 천황이라는 입장에 관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나 자신 또한 스스로의 존재에 관해 깊이 명심하고, 국민을 깊이 이해하고자, 언제나 국민과 함께 있다는 자각을 마음속에 길러야 할 필요성을 느껴 왔다"는 표명이다. 현 일본국 헌법 하에서 처음부터 "상징 천황"이었던 현 천황은, 말하자면 그 이름에 걸 맞는 임무를 모색하였고 실천해 왔다고 한다.

현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에 관한 규정을 첫 부분만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을 둔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는 것으로, 국회가 의결한 황실 전범典範이 결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이 국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와 관련된 일만을 행하며 국정과 관련된 권능을 갖지 않는다.

참고로 악명 높은 전전戰前의 "대일본제국헌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 전범이 결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황손 남자가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나라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며 헌법의 조규條規에 의거하여 이를 행한다.

그런데, 현 천황의 퇴위라는 의지표시에 관하여 이를테면 일본국민은 마스크를 포함하여 대

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NHK가 행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상징 천황제를 지지하며, 60%의 사람들이 "천황에 친근함을 느낀다"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현 상태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천황제가 현대 일본 만큼 정착한 시대는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물론, 한 편으로는 자민당이나 우파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전전 천황제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라고 본다면 호헌파護憲派의 정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천황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국민 수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전후 70년을 거친 현대 일본의, 과거에 행한 전쟁, 침략,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과 연동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매스컴에 천황제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일은 없다. 이는, 지금도 매스컴에서는 천황제가 일종의 터부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NHK를 포함한 여론 조사에서 천황제 반대가 표면화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자신도 약 10년 전에 매스컴으로부터 "여성 천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전화 취재를 받았는데, "나는 천황제 자체에 관해 반대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탁하고 전화를 끊은 경험이 있다. 단지 이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천황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의 수는 현재 일본에서는 소수파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역사학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역사학자의 발언이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게 된 지는 오래되었다. 전후 한 때 오피니언 리더였던 역사학은 지금은 안이한 사회학자나 정치학자에게 자리를 빼앗겨서 과거의 나부랭이 화제 거리 이외에는 등장할 일이 적어졌다. 하물며 근대사와 관련된 역사학자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경향이 신중하게 검토되며 어느 정도 우파적인 학자가 뽑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사히신문 기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 점 또한 현대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역사학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지금은 좀체 발언할 기회도 줄었고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문제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은 삼분의 일에 가까운 이들이 천황제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소수파라면 소수파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역사를 배운 이들로서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첫째, 천황제가 군주제라는 전 근대주권의 산물이며 역사적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대 민주제에 대립한다는 점. 둘째, 특히 이 점이 중요한데, 전후의 상징 천황제와는 다르다고 해도 이와 같은 천황제가 아시아에서는 비참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것에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던 쇼와 천황도 29년 전까지 상징천황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상징이든 절대 군주든지 간에 '국민 통합=내셔널리즘'의 핵심으로서 천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력화를 가능하고 헤아리는 일은 역사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 넷째, 천황 권위의 원천이 허구인 혈통·가계에 있다고 이야기된다면, 이와 똑같이 비합리적인 이유에서의 혈통·가계에 의한 차별이 일본 사회로부터 근절될 수 없다는 점. 다섯째, 뒤에서 말하겠지만 천황제도 또한 "만들어진 전통"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천황제를 핵심으로 일본 역사나 일본 문화가 일관되게 존재해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연구로부터 보았을 때 가장 큰 질곡이자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째, 두 번째로 말한 것과 연관되는데, 이러한 천황제에 의해서 세계 사람들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과의 자유롭고 대등한 교류가 방해받는다라는 점, 특히 역사 인식 문제의 근간에는 이 천황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직시해 보면 천황제 비판을 동반하지 않는 근대사 역사 연구 교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일곱째, 신사, 신도와 천황제가 결부되어져서 이 점이 궁극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전전 시기와는 달리 신사 참배를 강요받는 일은 없어졌으나 지금도 "일본인이라면 천황제 신화의 신들을 제사지낼 수 있게 된 근대로 들면서 신사 참배는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상 열거한 것만으로도 천황제를 비판하고 천황제에 반대하는 것은 역사 연구자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점을 역사 강의에서 이야기하면 많은 학생들과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매스컴이나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논의될 기회가 극히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태이다.

2.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징천황제까지 포함하는 근현대의 천황제가, 사실은 에도(도쿠가와)시대까지 존재했던 천황제와는 이질적인, 문자 그대로 근현대의 작위물이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은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 일본 역사상 천황제는 일관되게 존재해 왔으며("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 왕조교체가 없었다는 점이 일본 역사의 특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나아가서 말하자면, 근대 일본이 행한 침략, 식민지 지배를 나쁜 역사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근대 천황제는 예외적인 존재이며 오늘날의 상징 천황제가 실은 고대부터 일관되게 있어 온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논하겠지만, 신도나 신사가 천황제와 결부된 존재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일본에는 많다. 즉, 신도나 신사가 근대의 국가신도의 작위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도쿠가와 시대의 천황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근대 천황제와 크게는 어떤 점이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쿠가와 시대의 천황과 조정은 전대前代의 왕가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이다. 즉, 무가(武家) 왕권이 성립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왕조가 교체되었으나, 왕권에 왕조를 이용할 가치가 있는 한에서 간신히 왕조의 존재가 허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내셔널리즘의 전야라고도 말할 수 있는 18세기 말에는, 이를 기회로 천황제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여 간 것은 사실이지만(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나 후기 미토학(水戸學) 등), 도쿠가와 시대에서 다수파를 지배하고 있던 유학계 지식인들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18세기 초반에 활동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라는 유학자나, 실제로 6대, 7대 장군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핵에 있었던 유학자들이 전형적인데, 그들의 주장은 무가 왕권의 일원적 지배가 확립한 14세기 말을 기준으로 고대 이후의 천황 왕권은 망하고(역성(易姓) 혁명), 그 이후는 무가 왕권이 필요에 따라서 전대의 왕가라는 존재를 지탱하면서 정치를 행한다는 내용이였다(『読書余論』). 오늘날의 한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제국의 구조』), 이러한 사태는 오히려 중심부에서 떨어진 주변 왕조에서 널리 있었던 일로, 특히 무인 왕권이 권력을 장악해 버리는 주변 지역에서는 그 정통성 때문에 전대의 왕권을 이용했다고 말한다. 일본의 무가 왕권은 말하자면 "문(文)"을 체현할 수 없었던 만큼 천황과 조정이라는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는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 특히 왕권 정비나 질서 확립에 애쓸 수밖에 없었던 도쿠가와 무가 왕권은 중세의 사원이나 조정 세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물론 10만석이라고는 해도 천황과 조정이 가까스로 존재는 하고 있었던 이상(참고로 도쿠가와와는 300만석), 도쿠가와 시대에도 지식인들은 천황을 둘러싸고 수많은 언설 공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현실상 조정과 막부에 관한 인식과 연동해 가면서 나아가서는 명칭 왕조교체 후의 일본 왕권의 선양이라는 측면에서 천황의 정통은 이어진다는 "황통연면(皇統連綿)" 격으로 천황을 파악한 주장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 하나하나를 열거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점은, 천황계를 전대의 왕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든, 또는 현재에도 명맥을 잇는 존재로서 말하는 것이든

지 간에, 그것에는 대체로 유학적 치도관治道觀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고대 천황제의 정사인 『니혼쇼키/일본서기日本書紀』의 언설을 해석하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유교 문명권의 내부와 주변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두고 왕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언설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근대로 오면서 마치 천황 찬미주의자의 전형처럼 이야기되는 17세기 유학자,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슈초지지츠/중조사실中朝事實』를 예로 그 논리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해 두고자 한다.

소코가 『중조사실』을 쓴 것은 명에서 청으로 왕조가 교체된(1662) 직후였던 1669년이었다. 조선 왕조의 유학자 송시열이이 한 것처럼, 소코는 일본을 "중화", 청을 "이적夷狄"이라 했다. 이는 그가 "예禮"라는 왕권의 정통성 원리와 관련하여 "황통연면"인 일본이야말로 "예"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소코는 조정이 "예"의 내용을 잃었기에 "무신이 이를 받아 들어서 백성을 안정시키고 천하를 통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바(『부케쇼키/무가사기武家事紀』), 일종의 왕조 교체론이라는 입장에서 서 있다는 점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근대 천황제의 "만세일계"론과는 명확히 다른 이론이 일반적이었다는 말이다.

3.

천황제를 일본 역사와 정치 체제의 특질이라고 파악하는 사상은, 모토오리 노리나가 이후의 국학이나 후기 미토학 즉, 일본 내셔널리즘의 작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은 정치적으로도 18세기 말 이후에 나타나는, 막부 정치가 천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 고카쿠덴노光格天皇(1771~1840)에 의한 조정의 발언력 증대 운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대외적 위기가 본격화되는 1850년대 이후의 외교를 둘러싼 조정의 발언권 확대, 고메이덴노孝明天皇(1831~1867)의 양이攘夷 표명 등을 받아들인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의 사상적 배경에도 역시 국학이나 후기 미토학의 천황론·국체론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들어서 천황제가 도쿠가와 막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가사상으로서 도쿠가와 시대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구상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국학이나 후기 미토학이 주장한 천황론·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은 도쿠가와 막부라는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막말에 대세를 차지하던 공무합체론公武合体論이나 공의정체론公議政體論도 이러한 대정위임론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다.

이들 언설은 메이지 유신 후에는 "전통의 창조"를 과제로 한 국민 국가에 의해 "전통"이라는 내용으로 정비되면서 1890년에 나온 교육칙어부터 1937년의 『국체의 본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천황을 만세일계의 사람의 모습을 한 신("하라히토가미/현인신現人神")으로 받든다는 주장이 정통적 일본론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으로 반복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번벌藩閥과 대항적으로 존재했던 계몽사상가나 자유민권운동가도 똑같이 천황에 대해서는 국민국가 형성의 유대, "나라의 안녕 유지"의 중추로서 파악했으며(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임금의 집안/테이시츠론帝室論』 및 나카에 죠민, 『평민의 깨어남平民の目さまし』), 어떠한 성격이든지 간에 국민국가 형성을 과제로 하고 있던 언설은 거의 대부분이 천황과 황실의 존재를 일본 국민국가의 "전통"을 이루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또한 사회적 언설의 수준에서도 천황 순행巡行을 비롯하여 국가신도 체제, 국가적 교육체제, 징병제의 정비, 나아가서는 천황제적으로 재편된 축제일의 제정, 국가·국기 제정, 국어 형성 등을 통해 천황과 국민국가·일본국민(="신민")을 불가분의 관계로 삼는 언설이 보급되어 갔다. 이와 병행하여 "살아 있는 신(이키가미生き神) 신앙"에 오버랩된 현인신現人神 천황관, 조상숭배나 가문의식家意識과 흡착되어 표상된 "가장家長 격으로서의 천황을 받드는 가족국가"

라는 언설도 새롭게 탄생되어 갔다.

다이쇼 시기의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機關설이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에는 도덕적, 신화적 천황론 또는 전제적 천황 통치에 대한 비판이 보이는데, 이러한 의미에서는 유럽의 법사상에 드러나는 군주론 일반을 통해 천황을 해석한 시도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들에게도 국가통치상 천황이 갖는 적극적인 역할은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다.

쇼와昭和 시기에 이르면 쇼와 공황이 불러온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제정祭政일체와 군민일체를 내건 쇼와 유신이 강하게 주장되면서 천황친정론天皇親政論이 대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식인 사이에서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쏠렸다. 예를 들면 존왕론을 기축으로 "전통" 문화론을 펼친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절대 현재의 자기 한정" 격의 황실을 받드는, 개성적 민족국가를 주장한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철학, 일본고전으로의 회귀를 기반으로 하는 쇼와 낭만파 문학 등, 위기적 상황에 있던 국민국가의 연대로서 천황을 제창한 이들 사상은, 일본 문화론과도 겹쳐지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뒤덮어 갔다.

전전 시기, 천황제를 공공연하게 비판한 이들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등의 평민사 그룹, 나아가서 일본 공산당·강좌講座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으나, 전자가 주장한 "천자는 일본 제일의 대자본가·대지주"라는 내용, 후자의 "반半봉건적 절대주의적 천황제"라는 주장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고 또한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또한 기독교나 민중적 "이단종교"에는 국민국가적 언설을 해체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어느 쪽도 천황을 숭경하는 것은 신앙과는 다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언설로 포섭되었으며, 게다가 자신들의 교의와 아마테라스·천황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교단도 많았다.

전후가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 등은 전전 천황제에 대한 비판을 행했으나 이들은 근대적이지 않은 "반半봉건적" 천황제 국가 비판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국가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똑같이 전전 천황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이 주장한 상징천황제론은 국민 통합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이윽고 일본국헌법 조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언설로서 다수파를 형성해 갔다. 전후 민주주의 안에서 현인신 천황관이나 만세일계식의 천황관 등의 언설은 확실히 표면적으로는 해체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전통"을 짚어진 천황은,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신도에 관해서도 언급해 두고 싶다. 오늘날에도 일본 사람의 상당수는 국가신도라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나는 이 점이 오늘날에도 천황제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신도란, 근대 천황제 국가에서 일종의 "국교"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그 사상적 원류는 천황 신화를 기반으로 신도를 재편하고 이에 의해 종교 생활 통합을 도모하기를 주장한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등의 국학 및 후기 미토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복고신도가復古神道家 등을 중심으로 한 신기神祇행정과 종교정책, 즉 율령제를 모방하는 형식으로 설립된 신기관神祇官에 의한 제정일치와 신불神佛 분리정책에 그 원류를 둔다. 이는 구미의 여러 나라와 기독교와 대치하는 형태로 강력한 국민국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진 이데올로기 정책이었다. 따라서 도쿠가와 시대까지는 사원의 지배하에 존재했으며 목가적인 촌락 제사, 조상 제사라는 기능에 불과했던 신사도 그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즉, 국가신도 체제 하에서는 전국의 신사가 이세신궁伊勢神宮 및 궁중삼전宮中三殿을 정점으

로 하여 위계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신사에 있어서는 통일된 양식에 의해 국가 제사가 이루어졌다. 신직神職도 국가관사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모든 국민은 특정 신사의 씨자氏子가 되었다. 각 신사의 신앙은 도쿠가와 시대 이래부터 갖추고 있던 특질이 보존되기는 했으나, 국가에 의한 획일적 통제는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은 제28조에서 "안녕 유지를 방해하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신교信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국가신도 체제를 전제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국가신도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민속 신앙이나 민중종교 등은 음사사교淫祠邪教라는 취급을 받아 엄한 탄압을 당한 바, 메이지 말까지 계속된 텐리교天理教 탄압, 다이쇼 시기의 오오모토교大本教 탄압, 쇼와 초기의 성결파 교회(홀리니스 교회) 탄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똑같이 국가신도라는 이름에 의해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신사 숭배가 강요되었다.

1945년 12월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신도지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사를 보호하는 행위는 정지되었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다. 1946년 1월 1일(元日)에 있었던 천황의 "인간 선언"과 함께 신기원神祇官관제 및 신사와 관련된 전 법령이 폐지되면서 국가신도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 신도지령의 철폐를 구하는 목소리나 야스쿠니 신사의 국가 호지護持(보호와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에는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신사 신앙과 천황제가 고의적으로 결부되는 국민 의식 속에서 이러한 잔재는 농후하게 남아 있다.

이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황제에 관한 상황을 개괄한 것이다. 자, 요약해 보자. 일본 역사, 일본 국가와 천황제를 결부시켜서 특질을 뽑아내는 논조는 지금도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 고대 이래부터 일본 열도에서 천황제가 왕권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천황제란, 상징천황제를 포함하여 명확히 근대 국가의 조작물이다. 전근대까지 왕권으로 존재했던 천황제는 무엇보다도 무가 왕권에 의해서 이용될 만큼 항상 견제되고 억제되었던 존재였다. 역사의식이라는 면에서 유학자의 경우를 보면 현저한데 왕조교체론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도쿠가와 시대까지 천황 왕권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다. 또한, 오늘은 소개하지 못했으나 전후 고대사 연구의 진전에 의해 고대천황왕권 또한 동아시아 문명권의 내부로서 존재했으며, 특히 조선반도의 정세와 깊이 관련하여 성립했다는 점, 천황 신화의 많은 부분이 허구이며 천황의 계보에 관해서도 실재로 확인되는 것은 제15대(4세기 무렵) 오진덴노應神天皇 정도부터라는 점, 나아가서 계보 자체 상으로도 작위作爲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몇 번이나 단절을 거쳤다는 점 등이 학계에서는 통설화 되어 있다. 중세 천황제에 관해서도 사원寺社 세력, 무가 세력과 패권을 다투는 하나의 권력가문에 지나지 않았음은 학계의 통설이다. 또한 현행 천황제에서 행하는 의례의 대부분도 오랜 전통이 있는 것처럼 늘어난다고 해도 메이지유신 이후에 국학자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도, 오늘날에는 학계의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학자의 발언력은 점점 저하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국민들의 상식과도 괴리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여론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천황제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 국민이 많으며, 이 점이 한국과 중국 사람들과 역사인식 문제에서 시비를 다투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 관해서도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아시아와 세계로 열리는 일본을 전망하는 데에 있어서 천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일본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임은 확실하다.

<참고문헌>

村上重良 『国家神道』 岩波書店, 1970.

石田圭介編 『近代知識人の天皇論』 日本教文社, 1987.

安丸良夫・宮地正人編 『宗教と国家』 日本近代思想大系⑤ 岩波書店, 1988.

T・フジタニ 『天皇のページェント』 NHK, 1994.

羽賀祥二 『明治維新と宗教』 筑摩書房, 1995.

子安宣邦 『近代知のアルケオロジー』 岩波書店, 1996.

桂島宣弘 『(増補改訂版)幕末民衆思想の研究』 文理閣, 2005.

桂島宣弘 『自他認識の思想史』 有志舎, 2008.